

하나 글로벌 데일리



글로벌 지표

미국 / 유럽 증시 / 국제 유가				
지수	증가	1D(%)	1W(%)	YTD(%)
Dow	32,817.4	(2.4)	(3.2)	(9.7)
S&P500	4,201.1	(3.0)	(4.0)	(11.9)
NASDAQ	12,831.0	(3.6)	(6.7)	(18.0)
STOXX50	3,512.2	(1.2)	(10.5)	(18.3)
VIX	36.5	14.0	20.9	111.7
WTI(원물)	120.4	4.1	25.8	60.1
BRENT(원물)	129.2	4.6	28.2	66.8
금	1,998.1	1.4	4.7	9.2

전일 아시아 / 신흥국 증시				
지수	증가	1D(%)	1W(%)	YTD(%)
KOSPI	2,651.3	(2.3)	(1.8)	(11.0)
KOSDAQ	881.5	(2.2)	0.1	(14.7)
일본(Nikkei)	25,221.4	(2.9)	(4.9)	(12.4)
중국(상매종합)	3,372.9	(2.2)	(2.6)	(7.3)
홍콩(H-Share)	7,412.6	(3.6)	(7.6)	(10.0)
홍콩(양성)	21,057.6	(3.9)	(7.3)	(10.0)
대만(가판)	17,178.7	(3.2)	(2.7)	(5.7)
인도(Sensex)	52,842.8	(2.7)	(6.1)	(9.3)
인니(자카르타)	6,869.1	(0.9)	(0.3)	4.4
베트남(호치민)	1,499.1	(0.4)	0.6	0.1
러시아(RTS)	936.9	0.0	0.0	(41.3)
브라질(Bovespa)	111,593.5	(2.5)	(1.4)	6.5

Global Event Calendar (현지시각 기준)

8일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 1월 무역수지 유 4Q GDP
9일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0대 대통령 선거일 중 2월 CPI
10일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 2월 CPI ECB 통화정책회의

글로벌 증시

Global 증시 마감 사항

▶ 미국/유럽 증시

- 미국 증시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부각되며 하락 마감
- 유가는 WTI유 배럴당 120달러, 브렌트유 배럴당 124달러 기록, 월요일 오전 고점 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나 여전한 높은 수준 유지
- 고유가 부담에 델타항공(-12.72%), 아메리칸항공(-11.99%) 등 항공주 약세

▶ 중국 증시

- 중국 본토증시는 팬데믹 이후 코로나 확진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유가가 상승하는 등의 영향으로 하락 마감
- 대부분 업종 약세를 보였으며 특히 주요 성장주와 리오프닝 업종의 약세가 두드러짐
- 홍콩증시 역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하락 마감

Global Issue & News

▶ 러시아 우크라이나 3차 회담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2차 협상과 같은 벨라루스 브레스트에서 3차 회담 진행
- 2차 협상에서 민간인 대피 위한 인도주의 통로 개설, 통로 주변 휴전에 합의했으나 민간인 탈출 실패한 바 있음
- 우크라이나 협상단 총 대리인 하라미야 집권당 대표는 비 NATO 모델을 논의할 준비가 됐다고 언급하며 협상 진전 가능성

▶ 미국,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금지 합의안 발표

- 미국 양당은 러시아산 에너지 제품 수입을 금지하고 정상적인 무역관계 중단하는 법안 발의에 합의
- 대통령의 러시아 및 벨라루스산 제품 관세 인상 권한, 상무부 장관에 러시아의 WTO 참여 중지 방안 마련 등 내용 포함 예정
- 한편 백악관은 아직 어떤 결정도 내리지는 않았으며 관련 논의가 유럽 동맹과 전세계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언급. 러시아는 제재 계속될 시 노드스트림1 가스관을 끊겠다고 협박

▶ 중국 1~2월 수출 16.3% 증가

- 중국의 1~2월 수출 증가율이 총체 연유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불확실성 속에서 둔화
-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올해 1~2월 중국 수출은 5천447억 달러(약 668조원)로 작년 동기 대비 16.3% 증가
- 로이터 통신은 "비록 시장 전망치는 웃돌았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올해 글로벌 무역에 불확실성이 고조되며 중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

▶ 중국 제조업 인력 2천200만명 부족

- 최근 중국의 취업 기피로 중국 제조업계의 부족 인력이 2천200만명에 달한다고 중국신문망이 7일 보도
- 최근 급속히 성장한 택배 산업 관련 종사자들이 1천만명을 넘어서 반면, 제조업 종사자들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50만명 감소
- 이에 따라 2020년 기준 중국 제조업계의 부족 인력이 2천200만명에 달해 구인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음

글로벌 업종/종목 퍼포먼스

미국 / 중국 / 유로존 (GICS Lv.1)					
기별	산업별	증가	1D(%)	1W(%)	1M(%)
미국	에너지	292.7	2.9	6.5	7.2
	소재	374.1	(0.4)	(0.3)	0.7
	산업재	384.7	(0.2)	0.5	(0.1)
	경기소비재	559.2	(1.6)	(3.5)	(7.1)
	필수소비재	301.7	0.2	1.4	(0.1)
	헬스케어	425.6	0.4	1.7	(0.0)
	금융	199.9	(2.1)	(3.7)	(8.1)
	IT	592.2	(1.9)	(3.3)	(5.8)
	커뮤니케이션	74.3	(1.5)	(3.0)	(5.2)
	유틸리티	206.9	2.1	4.1	2.9
중국	에너지	448.9	(0.1)	4.7	6.4
	소재	1,177.4	(2.1)	(2.2)	4.6
	산업재	135.6	(1.9)	(2.6)	(3.3)
	경기소비재	199.0	(5.2)	(7.2)	(15.3)
	필수소비재	1,736.0	(1.5)	(3.7)	(2.5)
	헬스케어	220.3	(1.8)	(5.6)	(9.2)
	금융	432.8	(1.1)	(1.8)	(5.7)
	IT	779.5	(2.7)	(6.5)	(7.5)
	커뮤니케이션	119.6	(4.2)	(5.6)	(14.4)
	유틸리티	692.4	(0.9)	(2.4)	(6.2)
유로존	에너지	126.1	(3.6)	(3.1)	(8.6)
	소재	339.6	(3.4)	(3.3)	(2.7)
	산업재	289.0	(3.9)	(7.0)	(8.9)
	경기소비재	176.6	(5.5)	(13.2)	(18.0)
	필수소비재	280.7	(2.2)	(4.7)	(4.6)
	헬스케어	240.7	(1.6)	(2.3)	(0.1)
	금융	57.3	(5.0)	(9.6)	(18.2)
	IT	148.2	(5.1)	(9.0)	(10.5)
	커뮤니케이션	51.1	(2.8)	(5.5)	(7.8)
	유틸리티	128.6	(1.3)	(10.4)	(6.1)

미국 / 중국 전일 추가 상승폭 상위 16 종목						
지수별	티커	종목명	증가	1D(%)	1W(%)	1M(%)
S&P500	NOV	NOV	21.2	15.7	23.6	33.2
	SLB	솔렘버거	42.1	8.1	7.3	4.5
	HAL	할리버트	36.2	6.2	8.1	11.5
	NEE	넥스트에라 에너지	84.2	4.9	7.6	11.2
	CF	CF 인더스트리얼스	95.7	4.9	17.9	32.1
	NEM	뉴몬트	77.9	4.8	17.6	22.8
	BKR	베이어 커 휴즈	34.8	4.7	18.4	26.3
	FE	퍼스트에너지	44.6	3.9	6.5	7.6
	LUMN	루멘 테크놀로지스	10.7	3.7	3.1	(14.8)
	XOM	엑스 모빌	87.1	3.6	11.1	5.7
	FTI	테크넵FMIC	7.7	2.8	11.8	13.3
	TSKO	트랙터 서플라이	227.5	2.5	11.6	4.5
	SO	서던 컴퍼니	69.2	2.4	6.9	2.3
	MOS	모자이크	61.1	2.2	16.6	37.5
	MRO	마라톤오일	24.3	2.2	7.8	12.6
	CVX	체브론	162.0	2.1	12.5	17.0
CSI300	601618	중국 아금 광공	4.4	6.0	8.4	7.3
	601800	중국 교통 건설	10.2	5.8	9.1	(2.5)
	000656	진커 지산집단	4.9	4.9	8.4	9.7
	600547	산둥 황금광업	21.1	4.4	1.8	10.7
	002945	ChinaIn Securities	14.8	4.0	6.6	1.4
	601600	중국 여업	7.3	2.7	12.7	23.9
	601857	페트로차이나	5.9	2.2	2.9	7.4
	601899	프진 광업 집단	11.8	2.2	5.4	14.3
	600011	화남국제전력	9.0	1.9	2.3	8.9
	601669	중국 전력건설집단	7.9	1.9	3.7	(18.1)
	600489	중진 황금	8.7	1.4	(0.8)	7.4
	600383	진디 집단	14.1	1.2	10.6	7.2
	001979	자오상 줘서	14.7	1.1	8.8	5.7
	600048	바오리 발전	17.2	0.8	8.5	8.6
	601607	상하이 의약 집단	19.3	0.8	3.3	(0.9)
	600705	중양 자본 광고	4.0	0.8	2.8	1.0

미국 전일 신고가 리스트		
티커	종목명	신고가(USD)
CMV	CMV 에너지	67.4
DE	디어	405.5
DTE	DTE 에너지	128.3
PMC	PMC	122.8
NOV	NOV	22.7
NEM	뉴몬트	78.1
H	헨팅턴 잉겔스	228.7
LDOS	레이도스 홀딩스	109.4
PSA	퍼블릭 스토리지	380.4
CSX	CSX	38.6

중국 전일 신고가 리스트		
티커	종목명	신고가(CNY)
600900	중국 창장 전력	24.2
600048	바오리 발전 광고 집단	17.6
001979	자오상 줘서	15.1
600383	진디 집단	14.4

ETF 퍼포먼스

업종별 ETF				
종목명	증가	1D	1W	1M
필수소비재(XLP)	74.5	-1.8	-1.9	-1.9
자유소비재(XLY)	163.2	-4.9	-7.4	-12.3
금융(XLF)	35.9	-3.7	-8.3	-9.4
IT(XLI)	144.3	-3.7	-6.5	-11.2
헬스케어(XLV)	130.2	-1.7	-0.6	-1.0
원자재기업(XLB)	80.2	-3.5	-4.9	-6.5
에너지기업(XLE)	76.3	1.5	10.8	11.8
유틸리티(XLU)	71.8	1.3	6.3	5.1
통신(XLC)	64.3	-3.3	-6.2	-13.8
산업재(XLI)	97.7	-2.7	-1.4	-4.3
반도체(SMH)	242.6	-5.0	-10.3	-12.3
은행(BEB)	51.4	-4.2	-9.2	-8.1

스타일, 자산별 ETF				
종목명	증가	1D	1W	1M
성장주(VUG)	257.9	-4.0	-6.9	-12.1
가치주(VTV)	142.1	-2.0	-1.8	-3.0
선진국(EFA)	66.8	-3.2	-10.5	-12.7
신흥국(EMCG)	52.8	-3.8	-8.9	-11.9
채권총합(AGG)	109.7	-0.6	0.1	-1.7
국채(GOVT)	25.7	-0.4	0.7	-0.7
장기국채(TLT)	139.2	-0.8	1.7	-1.8
물가채(TIP)	128.5	0.5	2.8	2.6
ICB(사채(LQD))	122.1	-1.2	-1.1	-4.4
H(외사채(HYC))	81.8	-0.9	-2.1	-3.4
리츠(VNQ)	103.2	-2.0	-0.9	-2.6
한국(EWY)	67.1	-4.1	-7.6	-8.0

테마별 ETF				
종목명	증가	1D	1W	1M
친환경(CLIN)	19.9	-6.9	2.5	2.4
혁신산업(ARKK)	58.1	-3.6	-14.4	-24.7
우주항공(LFO)	23.9	-1.0	-2.3	-3.8
클라우드(SKYY)	80.2	-3.4	-6.8	-14.2
온라인소매(ONLN)	41.8	-4.3	-11.2	-19.1
ESG(ESGU)	94.1	-2.9	-4.3	-7.9
생명공학(IGB)	120.6	-1.6	-4.5	-10.2
엔터&레저(PEI)	42.9	-6.8	-11.9	-10.1
핀테크(ARKF)	24.4	-6.0	-17.3	-27.0
전기차(IDRV)	41.6	-4.7	-13.0	-17.7
AI, 로봇(ARKQ)	60.5	-1.6	-5.5	-9.1
농업(MOO)	97.3	-1.4	1.7	3.3

미국(선진국)

테크 / 플랫폼

▶ 알파벳(GOOG.US): 우크라이나 난민위에 폴란드 오피스 개방

- 구글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폴란드 오피스를 개방하고 다른 차원의 지원도 제공할 것이라 발표
- 바르샤바에 있는 스타트업 캠퍼스를 비정부 기구가 난민들에게 법적, 심리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함
- 지난 주 폴란드의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는 지역 단체에 1,000만 달러를 포함하여 2,500만 달러 원조 약속
- 몇몇 주요 기업들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지원하겠다고 약속
- 에어비앤비는 지난 주 100,000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고, 우버는 우크라이나-폴란드 국경 내 무료로 서비스 제공

▶ 넷플릭스(NFLX.US): 러시아 사업 철수, 사용자 감소는 미미할 것

- Benchmark 애널리스트 Matthew Harrigan는 넷플릭스의 러시아 사업 철수가 펀더멘털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 말함
- 여러 기업들이 러시아 사업에서 철수한다고 발표하면서 러시아 경제제재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넷플릭스 또한 이러한 대열에 합류
- 넷플릭스 구독자는 2.22억 명으로 집계되는데, 이 중 러시아 사용자는 0.01억 명 정도에 불과하며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
- 따라서 넷플릭스의 러시아 사업 철수 이후 발생한 추가 변동은 펀더멘털 영향으로 인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 전반의 투자심리 약화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
- 다만 넷플릭스가 경쟁심화와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으며 해당 시장에서 지배적 입지를 가지는 기업이 아니라, 타사 대비 선도적 위치에 있는 기업 정도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말함

소비재 / 헬스케어 / 금융

▶ [식음료 산업] 러시아 못떠나는 식음료업체들

- 온라인을 중심으로 코카콜라, 맥도날드, 펄시코 등에 대한 불매운동 증가 중. 글로벌 기업들이 러시아를 손절하는 상황에서 러시아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
- 영국 인디펜던트는 우크라이나 유통체인점 3곳이 코카콜라 제품 진열을 중단했고 트위터에는 코카콜라, 맥도날드, 펄시코를 보이콧하자는 해시태그가 급증
- 우크라이나 슈퍼마켓 체인 부보스는 코카콜라, 환타, 슈웨츠, 생수 등의 코카콜라 제품 판매를 중단
- 앞서 코카콜라는 러시아에서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 러시아에서 코카콜라 제품 유통권을 보유한 코카콜라 헬레나 보틀링은 러시아에 있는 코카콜라의 모든 운영, 생산, 물류는 정상 작동 중
- 2800억 달러 규모로 맥도날드, 펄시코 추적을 보유하고 있는 뉴욕연기금은 최근 러시아 사업을 재고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 토마스 디나폴리 뉴욕주 감시관 명의로 된 서한은 "법적 문제를 비롯해 인권, 평판, 운영상의 위험 등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

산업재 / 에너지 / 통신

▶ 보잉(BA.US) 러시아산 티타늄 구입 중단 선언

- 이번 주 월요일 보잉이 러시아산 티타늄 구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함
 - 경쟁사인 에어버스는 여전히 세계 최대 티타늄 공급사를 보유한 러시아에 티타늄 공급을 의존하고 있음
 - 보잉은 현재 상당한 양의 티타늄 재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티타늄 공급처를 다변화함으로써 항공기 생산에 충분한 티타늄 공급 체계를 갖추었다고 주장
 - 보잉과 러시아 국영 기업 VSMPO-AVISMA는 작년 11월 두바이 에어쇼에서 티타늄 공급 계약을 갱신하고 러시아 내 티타늄 생산 JV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던 바 있음
 - VSMPO-AVISMA 회장인 Dmitry Osipov는 보잉의 조치에 대해 이메일을 통해 "우리의 오랜 파트너와의 계약이 중단된 것을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힘
 - VSMPO-AVISMA는 러시아 국영 국방 기업인 Rostec이 자본의 25%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출의 75%가 항공우주 분야에서 창출되고 있음. 보잉과 에어버스는 VSMPO-AVISMA를 통해 전체 티타늄 물량의 1/3, 1/2를 각각 공급 받고 있음
- #### ▶ [항공 산업] 유가 상승에 추가 약세 지속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글로벌 석유 공급 우려로 항공유 가격이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항공사들의 비용 부담이 가중
 - 연료 비용은 일반적으로 항공사의 두 번째로 큰 비용으로, 지난주에만 연료 비용이 32%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항공사들이 이번 달 1분기 매출 및 수익 추정치를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
 - BOA 애널리스트 Andrew Diodora는 2분기 미국 국내선 스케줄이 2019년 동기에 유사한 수준을 이어가고 있으며 여객 고객에 대한 경쟁 증가로 항공사들의 캐패는 줄어든 것이라고 분석. 또한 올 여름 여행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이나 연료 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을 상쇄하기에는 불충분할 것이라 예상
 - 여객 수요 반응에 맞춰 고객을 유지해야 하는 입장에서 비용 상승분을 충분히 항공편 가격에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
 - 이에 따라 항공유 가격 헷지를 수행하지 않은 항공사들의 타격이 특히 더 클 것으로 전망됨

▶ 아메리칸타워(AMT.US): 4분기 실적 발표

- FY2021 매출액이 16.3%(YoY) 상승하며 9,357백만달러 기록. 주당 당기순이익은 49.3%(YoY) 상승하며 5.66달러. AFFO는 4,277백만 달러로 13.4%(YoY) 상승 및 주당 AFFO는 11.7%(YoY) 상승한 9.43달러 발표
- 21-22년도 주당 AFFO 성장률 전망치는 4%(YoY)이상 상승 예상. 2022년도 부동산 매출액은 10,310백만달러로 13%(YoY) 상승 전망
- 2022년도 배당금 성장률은 12.5% 목표치로 예상

투자유망종목

투자유망종목 Weekly (2/23~3/15)

종목	코드	시총(조)	편입일	1D(%)	누적(%)
애플	AAPL.US	3,202	1/26	(2.37)	(1.44)
마이크로소프트	MSFT.US	2,575	2/9	(3.78)	(7.32)
월마트	WMT.US	484	1/26	(0.81)	1.05
발레로 에너지	VLO.US	42	1/5	(2.29)	8.91
강봉리튬	1772.HK	36	1/26	(4.95)	(8.14)

중국

소비재 / 헬스케어

▶ 마오타이(600519.CH): 마오타이 1-2월 매출액, 순이익 YoY +20% 증가

- 마오타이는 이례적으로 1-2월 실적 공개. 마오타이 1-2월 합산 매출액은 202억위안으로 YoY +20% 증가, 순이익은 102억위안으로 YoY +20% 증가
- 최근 마오타이 주가는 연일 약세 시현. 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긴장 고조, 코로나19 재확산, 소비세 인상 루머 등 약재에 기인

▶ 목원식품(002714.CH): 생돈 판매가 QoQ -16% 하락

- 1-2월 생돈 판매량 783.1만 마리로 YoY +60% 증가, 매출액은 101.62억위안으로 YoY -17% 감소
- 평균 판매가는 12.38위안으로 2021년 12월 대비 16% 하락

▶ 항서제약(600276.CH): 신약 개발 현황

- 자체 개발 신약 JIK 억제제 SHR0302는 척추관절염에 대한 임상 여가 획득
- 이와 동일한 약물은 출시된 바 없으며, 항서제약 누적 연구개발비는 4.1억위안
- SHR150-1 단일 요법, BCC와 병용 요법은 방광암에 대한 용량 증가 및 용량 확대에 대한 임상 1/2상 여가 획득
- 현재 중국 내 이와 동일한 타깃으로 임상을 진행 중인 약물은 없으며, 항서제약 누적 연구개발비는 4383만위안

전기차 / 신에너지

▶ 용기실리콘(601012.CH): 루이징 2기, 모노 웨이퍼 연 생산능력 20GW에서 30GW로 확대

- 3/6 공시에 따르면, 용기실리콘은 지난 2020년 9월 22일 중국 루이징시 인민정부와 루이징경제기술개발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체결했던 모노 잉곳/웨이퍼 투자 루이징 2기 프로젝트 협의를 관하여 최종 협의를 체결했다고 발표
- 최종 협의에 따르면, 기존 연간 20GW 모노 잉곳 생산 프로젝트 규모는 변동이 없으나, 기존 연간 20GW 모노 웨이퍼 생산 프로젝트는 30GW로 확대됨

▶ 용기실리콘(601012.CH): 2022년 폴리실리콘 가격 점진적 하락세 전망

- 용기실리콘은 2022년 폴리실리콘 가격 전망과 관련하여 2021년 4분기부터 통위와 다츠, 보리엄을 등 폴리실리콘 대형 제조사들의 증설된 Capax가 가동됨에 2022년 폴리실리콘 가격은 점진적으로 하락세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

추천 ETF

분류	종목코드(ETF명)	기초자산	투자포인트
주식형	VTV (Vanguard Value ETF)	미국 대형 가치주	긴축, 인플레이션 이슈와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대형 가치주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 관리
주식형	SPYD (SPDR Portfolio S&P 500 High Dividend ETF)	미국 배당주	최근 하락하는 금리가 유발하는 변동성 국면에서 안정적인 배당 확보가 가능
주식형	AWAY (ETFMG Travel Tech ETF)	글로벌 여행주	글로벌 리오프닝 진행에 따라 점차적으로 여행 관련 기업들의 수익성 개선 기대
주식형	SPHQ (Invesco S&P 500 Quality ETF)	미국 퀄리티 주식	펀더멘털에 의한 수익을 차별화가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